

1,300m 지하동굴 조난 탐험가 극적 구조

튀르키예에서 1.3km 깊이의 지하동굴에 갇힌 미국인 탐험가가 조난된 지 9일 만에 국제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튀르키예 동굴탐험연맹(TUM-AF)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1일 미국인 탐험가 마크 디키(40)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디키는 자신이 이끄는 탐험대와 함께 지난 2일 튀르키예 남부 토로스 산맥에 위치한 '모르카 동굴'을 조사하던 도중 급성 위장 출혈로 인해 지하 1.12km 지점에서 홀로 조난을 당했다. 모르카 동굴은 내부가 구불구불한 미로처럼 얽혀 있어 자력 탈출이 쉽지 않다.

디키를 구출하기 위해 튀르키예, 크로아티아, 헝가리,



▲ 구조대가 마크 디키에게 긴급 수혈을 하고 있다. 사진=Moritz Wedel 캡처

이탈리아 등에서 온 150명이 투입됐다. 구급대와 동굴 탐험가,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제 구조대는 좁은 암벽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폭약을 사용하기도 했다. 6일 조난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헝가리 구조대는 디키에게 긴급 수혈을 실시했다.

디키의 상태가 안정됐다고 판단한 구조대는 그를 들것에 옮긴 뒤 본격적인 구출에 돌입했다. 다행히 구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이날 새벽 디키가 동굴 입구를 빠져나왔다.

미국 뉴저지 출신인 디키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동물 탐험가로 알려져 있다. 헝가리 동굴구조팀에 따르면 디키는 지난 8월부터 모르카 동굴을 탐험했다.

“고독사 싫어, 교도소 보내달라”



▲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후스토 마르케스. 사진=univision.com

스페인의 한 남성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에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스페인 말라가에 살고 있는 후스토 마르케스(60)는 말라가의 알아우린 교도소 주변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그는 “혼자서 고독하게 죽는 것보다 자유를 포기하고 싶다. 제발 교도소에 가줘달라”고 애원했다.

마르케스는 2020년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다. 항암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지난 6월 암이 재발했다.

그가 암 판정을 받아 부인과 5명의 자녀들은 그의 곁을 떠났다. 요리사로 일하다 은퇴한 마르케스는 “평생 경제적 문제도 없었고 부인과도 관계가 좋았지만 암에 걸렸다고 하자 바로 나를 버리더라”며 “자식들까지 외면할 줄은 몰랐는데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모두 곁을 떠나자 남자는 고독사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머리에 스친 게 교도소였다. 그는 17살 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즉시 말라가의 교도소를 찾아가 자신을 구급해달라고 했지만 교도소는 당연히 거부했다. 마르케스는 이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에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정말로 죄를 짓긴 싫다”며 “죄를 짓지 않고 교도소에 가는 방법이 없어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먹다 따돌림” ... 미국, 김밥 열풍

한 음식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김밥을 소개한 영상이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며 미국 전역에서 김밥 열풍이 불고 있다.

7일 NBC는 미국 대형 마트 체인 트레이더조스(Trader Joe's)가 최근 출시한 냉동 김밥이 전국적으로 매진됐다고 보도했다. 상품이 다시 입고될 을 11월까지 품귀 사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김밥의 인기는 한국계 음식 콘텐츠 크리에이터 사라 안(27)의 틱톡 영상이 1,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NBC는 분석했다. 이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냉동 김밥을 데워 함께 먹으며 맛을 평가하는 영상을 지난달 틱톡에 올렸다.

사라 안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김밥 동영상에 큰 인기를 끌어 놀랐다”며 “이젠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어렸을 때 백인들이 대다수인 학교에서 어머니



▲ 포장지에서 김밥을 꺼내 보인 후(왼쪽) 데운 김밥을 먹고 있는 사라 안과 그의 어머니. 사진=tiktok(alhnestkitchen) 캡처

가 싸주신 김밥 등 한식을 점심으로 먹었을 때 조롱당했었다”며 “어릴 땐 K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국 음악과 음식 등 모든 것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은 트레이더조스에서 김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H마트 등 다른 한인 마트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NEW Construction

ADU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꿈꾸는 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건축공사는 신뢰와 실력으로, 크든 작든 믿고 맡겨주세요!

설계에서 시공까지 한번에 OK!

- 전문가들의 책임감 있는 시공!
- 거품없는 합리적인 착한가격!
- 철저하고 정확한 공사기간!
- 고객의 만족을 위한 Service 정신!

NEW CONSTRUCTION (신축)
RENOVATION, ADU 전문

고객의 만족은 최우선으로 하는

ACCURATE CONSTRUCTION & REHAB, INC
State Lic. 941446 / Lic & Bonded & Insured / ORANGE COUNTY 전지역
TEL. 562-991-8986 DAVID CHOI

NEW Construction

ADU